

새학기 어린이 교통사고 주의보

보행자 교통사고를 당한 어린이의 입원 비율이 성인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가운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면 2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질병관리본부가 2004~2016년 보행자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현황과 손상 발생 요인을 조사한 결과,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입원한 손상 환자 비율은 2016년 43.9%였다.

이 기간 환자수 자체는 1만4284명에서 3798명으로 73.4%가량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입원환자 비율은 53.9%보다 9.8%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다. 전체 비율 15.5%나 19세 이상 성인의 입원환자 비율 14.7%와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큰 격차를 보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령별 전체 교통사고 중 보행자 교통사고로 입원하는 환자 비율에서도 어린이는 40.4%(1만660명 중 4706명)로 성인(14.3%, 33만8776명 중 4만8063명)보다 2.8배 높았다.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봄철 들어 증가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변동폭이 두드러졌다.

5년간 12세 이하 어린이 보행자 사고는 12월에서 다음해 2월 겨울철 774건에서 3~5월 봄철 1381건으로 1.8배 증가했다. 특히 2월 216건이었던 사고 건수는 216건에서 478건으로 2.2배 급증했다.

이처럼 3월 들어 사고가 급증한 것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어린이들의 활동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응급실심장조사로 손상 발생 요인을 분석한 결과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오후 3~5시로 36.2%가 이 시간대 발생했다. 이어 오후 6~8시 26.8%, 낮 12시~오후 2시 17.5% 순이었다.

발생 장소는 도로가 86.3%로 주를 이뤘는데 이 가운데 차도·횡단보도가 57.8%로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봄철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와 가정에서 평소 꾸준히 어린이가 올바른 보행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길을 걸을 때 보도를 이용하고 보도가 없을 경우 길 안쪽으로 통행해야 하며 도로를 건널 때는 항상 횡단시설을 이용하고 방어보행 3원칙(사다, 보다, 건다)을 지켜야 한다. 보행 중 주의력을 저하시키는 다른 활동은

보행자 사고 입원율 성인의 2.8배

오후 3~5시, 차도·횡단보도서 발생

자제하고 운전자가 가시거리가 좋지 않은 날(눈, 비, 야간)에는 밝은 옷을 입어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게 좋다.

응급실심장조사심초조사사업의 운수사고 심층 분석자인 이강현 연세대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교통약자인 어린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위험이 크고 부상 시 육체적·정신적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자 보호 정책과 보행자에 대한 안전교육의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스



목련 쪼아먹는 직박구리. 원만한 봄 날씨를 보인 5일 오전 대구 북구 복현동 영진전문대학에서 직박구리 한 마리가 꽃망울 터뜨린 목련을 쪼아 먹고 있다.

교육부, 5년만에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284명 고발 취하

"세월호 참사 5주기...화해와 치유 차원"

수사·재판은 계속...징계 무효 여부 미정

교육부가 지난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284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

교육부는 5일 검찰청에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다. 고발취하서에는 "아픔에 공감하고 그 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은 교사 284명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한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 조사와 재판, 징계절차가 진행 됐다. 지난해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법원에 선처를 요

청했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당시 고발 사유에 대해 "법적 하지는 없었다"면서도 "올해 세월호 참사 5주기"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문재인정부는 지난 2월 26일 사회적 갈등 지우 차원에서 세월호 시국집회 참가자 11명을 삼일절 특별 사면 조치했으나,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아직도 33명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13명은 징계의결이 보류된 상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발 취하를 계기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회가 마련되고,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그 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지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은 친 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교육부는 단 법원이 참할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고 있다.

징계 무효화 역시 관한 교육청 수장인 교육감들 뒷으로 남겨진 전 망이다. 지난 2009년 경기도 교육감이었던 김 전 부총리가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도 받은 전례가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법 조항이 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한 점을 의식한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뉴스스

10년만에 영국 남성 2번째 에이즈 완치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에 걸린 한 영국 남성이 줄기세포를 이식 받는 수술 후 에이즈로부터 완치된 것으로 보인다. 네이처지가 4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환자의 완치 사실이 확인되면 10년 전 독일 남성 티머시 레이 브라운이라는 에이즈 환자가 처음으로 완치된 이후 2번째 완치 사례가 된다. 하지만 줄기세포 이식 수술은 위험하며 다른 환자들 경우 실패를 거듭했었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는 이 환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008년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진단받았다. 이후 2016년 암이 발병해 암 치료를 위해 줄기세포 이식에 동의했다.

의료진은 HIV에 자연적인 저항력을 갖도록 기증받은 줄기세포의 유전자를 변형시킨 뒤 이를 환자에게 이식했다.

환자는 면역 시스템이 바뀌면서 HIV에 저항력을 갖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최다美복권 당첨자 4개월만에 나타나

미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복권 당국이 4일(현지시간) 지난해 10월 추첨한 당첨금 15억 달러(1조6890억원)의 메가 밀리언 복권에 당첨됐던 1명이 4개월여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복권 당국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당첨자는 신원이 공개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당첨금을 일시금으로 받기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당첨자는 8억7800만 달러(9886억2800만원)를 현금으로 받게 된다.

15억 달러의 당첨금은 미 복권 사상 2번째로 많은 것이지만 이번에는 단 1명의 당첨자가 상금을 받게 돼 1명이 받는 당첨금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이다.

당첨 복권은 지난해 10월20일부터 23일 사이에 그린빌 인근에 위치한 심슨빌의 한 편의점에서 판매됐다. 이후 4달이 넘도록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아 당첨자를 둘러싼 온갖 추측들이 무성했었다. 당첨 복권은 다음달 19일이 지나면 당첨이 무효화될 예정이었다.

케냐서 헬기 추락으로 미국인 등 5명 사망

케냐 북부에서 미국인 4명과 현지 조종사가 탄 헬기콕터 한 대가 투르카나 호수에 추락해 탑승자 전원 사망했다고 경찰이 4일 말했다.

AP 통신이 파악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헬기 추락은 전날인 일요일 저녁 샌트럴 아일랜드(섬) 국립공원에서 로보로 텐트촌 방문을 마치고 두 대의 헬기가 이륙한 후 발생했다.

케냐 주재 미 대사관은 미국인 4명의 사망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이 중 3명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케냐 경찰 보고서는 추락 원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달에도 투르카나 호수 인근 로드와드로 가던 항공기가 추락해 5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3명이 미국인이었다.

필리핀 공항서 테이프 감긴 거북이 대량 발견

필리핀 관세청은 4일 마닐라의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NAIA)에서 박스 테이프에 감긴 거북이 152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트위터에 사진과 함께 공항에 버려진 가방 4개에서 살아있는 거북이 152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들은 홍콩에서 출발한 승객이 가방을 버리고 도망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이들 거북이의 가치는 450만 필리핀 페소(약 9796만 5000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밀수를 감행한 승객이 불법 야생동물 밀매에 대한 처벌 수위를 파악한 후 가방을 버린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필리핀 헌법에 따르면 불법 야생동물 밀수 행위는 2년 이하 징역형과 20만 필리핀 페소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발견된 거북이는 여러 종류가 섞여있었으며,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 위기종으로 분류하고 있는 '설카타 육지거북(Sulcata Tortoises)'도 포함됐다고 BBC는 전했다.

거북이들은 환경부와 야생동물 거래 감시반(WTMU)에 인도됐다. BBC는 거북이는 이국적인 애완동물로 길러지기도 하나, 아시아에서는 의료용 약재로 활용되며 일부 지역에서는 벌레 음식으로 활용된다고 설명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머릿에는요...
자폐치료장애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략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국가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보건복지부

[서울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